

## 유형론적 관점에서 다시 본 한국어 관형사의 품사 처리 문제

— 중·일 양 언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리우 완잉

**Liu Wanying.** 2017. 3. 31. **A Reconsideration about ‘Kwanhyeongsa’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Through the Comparison with Chinese and Japanese.** *Bilingual Research* 66, 1-2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the so-called ‘kwanhyeongsa(관형사)’ in Korean should be seen as one of the separate type of parts of speech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the existing ‘kwanhyeongsa’ words should be given a detailed resetting for their parts of speech. To reach the above mentioned purposes, the classification standard of parts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for all the discussions about parts of speech was firstly researched in this paper. Secondly, the existing ‘kwanhyeongsa’ words were compared with Chinese and Japanese.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it is not necessary to categorize ‘kwanhyeongsa’ separately. It makes more sense to classify most of the ‘kwanhyeongsa’ words as adjectives, pronouns or numerals according to their own meaning features. Also some of them can be identified as adverbs. In addition, words provided with features such as [TIME], [ORDER] or [DIRECTION] can be seen as elements of words but not words. (**Ewha Womans University**)

**【Key words】** establishment of parts of speech(품사 설정), classification standard(분류 기준), Kwanhyeongsa(관형사), adjective(형용사), pronoun(대명사), numeral(수사), adverb(부사), linguistic typology(언어유형론), Chinese(중국어), Japanese(일본어), comparison(비교)

---

\* 본고는 2016년 4월 23일에 열린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제12회 한국어교육 학술 대회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관형사의 품사 처리 문제 -중·일 양 언어와의 대조·비교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것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머리말

국어학 분야에서 한국어 품사에 관한 연구는 문법연구 역사상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어진 분야였던 만큼 품사 체계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는 동시에 그에 따른 품사 분류의 어려움도 보여 주고 있다. 국어교육을 위한 학교문법통일안(1963)의 확립을 계기로 한국어 품사 연구는 정착시기에 들어왔지만 품사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관형사의 품사 설정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교문법에서 관형사는 독립된 품사 유형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학문문법의 경우 관형사의 품사 설정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다.<sup>1)</sup> 관형사의 품사 지위가 불안정한 것은 이는 다른 품사 유형과 구별되는 문법적인 특수성을 가지면서도 관형사 목록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 이 관형사로서의 순수성을 가지지 못해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는 다른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 내지는 단어 자격조차 가지지 못 하는 접사나 어근 등 단어 형성요소들과 유사한 특징을 띠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황 아래,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를 다룰 때 기존 관형사의 품사 처리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범언어적으로 한국어를 다룰 때 한국어에만 초점을 둔 국어학의 어떠한 주장을 그대로 참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관형사와 관련해서 국립국

---

1) 관형사를 독립된 품사 유형으로 간주하는 학자들은 관형사를 의미 특징에 따라 성상 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로 세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관형사를 인정하지 않는 2분체계(허웅, 1995)나 의문관형사가 하나 추가된 4분체계(서정수, 1995)를 취하는 학자도 있었다. 또한, 관형사의 목록도 학자와 사전류마다 차이가 있다. 최웅환(2013:108)의 정리에 따르면 각종 사전류나 연구자별로 상정하는 관형사의 목록은 ‘X적’ 어형의 처리 문제, 한자어 관형사의 목록, 수관형사의 인정 여부, 굳은 관형사형의 처리 여부, 품사통용에 따른 분류 문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 관형사 무용론을 지지하는 학자들 가운데, 기존의 관형사 중 대부분을 형용사에 귀속시키는 학자들이 많이 있으나 새로 설정된 ‘형용사’의 범주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관형사 중 일부를 명사, 수사, 대명사 등에 귀속시키는 것도 보인다.

어원(2005)에서 한국어와 함께, 일본어, 영어, 중국어 예문을 다음 (1)과 같이 든 바가 있는데 이를 통해 범언어적으로 관형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킬 수 있다.

- (1) 가. 이 새 옷  
이 다섯 형제
- 나. このあたらしい服  
このご人兄弟
- 다. these new clothes  
these five brothers
- 라. 这件新衣服。  
这五个兄弟。

국립국어원(2005: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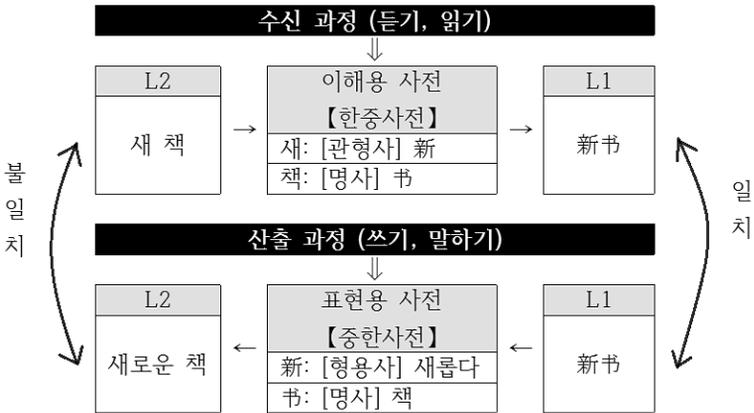
(1)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 각각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로 간주된 ‘이’, ‘새’, ‘다섯’과 대응하는 (1나-라)의 단어들 가운데 일본어의 ‘この’(kono)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반적인 대명사, 형용사, 수사이다.<sup>2)</sup> 관형사는 한국어의 문법적 특수성을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어

---

2) 한국어의 관형사와 관련해서 흔히 언급된 것은 일본어의 연체사[連体詞]이다. 연체사란 활용이 없이 체언만을 수식해주는 품사[活用が無く、体言だけを修飾する品詞。『新明解 国語辞典』(第五版)]이다. 金銀珠(2006:132)의 기술에 따르면 서양문법에서 말하는 Adjective는 연체 수식 용법으로 한정되나 이에 비해 일본어의 형용사는 서술 용법이 본질적인 방향으로 규정되므로 ‘연체⇔서술’의 대립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양극화는 그 후의 ‘연체사’라는 품사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요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어의 연체사와 한국어의 관형사는 확실히 유사성을 갖는 품사 유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주적으로 봤을 때 일본어의 연체사는 한국어의 관형사보다 단어 수가 적으며 한국어의 수관형사에 대응된 연체사가 따로 없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1)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관형사이지만 이와 의미상 대응된 일본어의 개별적인 단어는 형용사인 경우도 많이 보인다. 일본 학교문법에서는 (1)에서 제시된 ‘この’(kono)를 비롯해, ‘その’(sono), ‘あの’(ano)도 같이, 연체사[連体詞]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 방식을 반박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こ’(ko), ‘そ’(so), ‘あ’(a) 자체를 대명사로 보고 여기에 붙는 ‘の’(no)를 격조사

문법에서 이를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는 것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나 범언어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의 관형사와 유사한 품사 유형을 가지는 언어가 많지 않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실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 시 흔히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전(bilingual dictionary)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중언어 사전을 이용한 다음과 같은 학습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1> 이중언어 사전을 이용한 학습 양상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상관형사 ‘새’의 경우, 중국어의 형용사인 ‘新’(xīn)을 통해 설명하나 역으로 중국어의 ‘新’(xīn)은 중한사전에서 ‘새롭다’를 통해서만 설명되고 관형사 ‘새’가 해석에서 빠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표제어와 같은 품사 대응어가 있으면 먼저 그것을 통해 의미 대역 정보를 제공하는 이중언어 사전의 일반적

로 하여 두 가지 품사로 분리하는 학자도 있으며 ‘この’(kono), ‘その’(sono), ‘あの’(ano)를 대명사에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다.

인 편찬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중언어 사전을 이용하는 한국어 학습과정에 있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기존 관형사에 대한 산출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주목하여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관형사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부터 출발해 주로 중국어와 일본어와의 비교를 통해 기존의 관형사의 품사 처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품사 분류 기준에 입각해 한국어를 중·일 양 언어와 연관시켜 기존의 관형사의 품사 자격을 밝히는 데에 첫 번째 목표를 둔다.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관형사의 품사 재설정 제안을 도출하는 데에 두 번째 목표를 두고자 한다.

## 2. 품사 분류 기준을 통해 본 관형사의 품사 자격

그 동안 한국 학교문법을 비롯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문법까지 모두 동일하게 관형사를 독립된 품사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범언어적 측면에서 한국어 관형사의 설정 여부를 다루었던 연구 가운데 관형사의 품사 설정에 부정의 태도를 취했던 학자가 적지 않았다. 이 건환·송경안(2008:59)에서 품사 분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언어유형론이나 일반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형사는 애매한 품사이며 지시사(한정사), 형용사, 수량사의 세 가지 어류로 분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 목정수(2002)에서는 체계적 품사론을 위해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품사 체계를 설정함에 있어 관형사나 어근(명사)를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이러한 요소들을 일관된 기준에 입각하여 “형용사”라는 범주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였다.<sup>3)</sup> 그 이유로서 한국어의 관형사는 몇 개

3) 목정수(2002)에서 관형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사실상 주로 기존의 형용사와 관련이 있는 이른바 성상관형사에 제한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형사를 “형용사”

안 되는 다소 단혀진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일단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할 때, 관형사란 범주를 지칭하는 품사 용어의 선택 문제로부터, 결국 한국어의 관형사는 인구어의 형용사를 통해 설명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기존연구의 주장을 통해 범언어적으로는 관형사의 품사 설정의 유용성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그러나 과연 관형사는 단어 수가 많지 않은 폐쇄적인 단어 유형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언어에는 일반적으로 없는 품사 유형이라는 이유로 관형사의 품사 설정을 반박하는 데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을까? 양적으로 봤을 때 관형사뿐만 아니라 대명사, 조사 등도 비교적 폐쇄적인 품사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품사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고, 또한 다른 언어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품사 유형을 한국어 품사 체계에서도 폐기하지는 것은 한국어를 일방적으로 다른 언어에 끼워 맞추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우리가 품사 분류를 하는 데에 “어떤 품사 유형을 설정하고 어떤 품사 유형을 설정하지 않는다.”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근거는 단어 집합의 양적인 사실도 언어 간의 표면적인 대응상의 불일치도 아닌 바로 품사 분류 기준에 있다. 따라서 품사 설정에 관한 논의는 논의의 내용과 목적에 따른 적절한 품사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이 올바른 작업 순서이다. 품사 자격의 부여 여부는 분류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맥락을 기반으로 본고는 범언어적 측면에서 한국어의 관형사를 설정하는 데에 이에 부합되는 품사 분류 기준에 입각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관형사를 품사 분류 기준과 연관시켰을 때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들 수 있다.

---

의 범주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수량을 의미하는 ‘한, 두’ 등이나 지시의 의미를 가진 ‘이, 그, 저’ 등을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이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맺음말’ 부분에서 지시관형사나 지시형용사로 기술되었던 ‘이, 그, 저’는 지시(대)명사로 재배치된다는 주장을 명시한 바가 있다.

(2) 가. 기존 연구에서 관형사의 품사 유형 도출이 어떠한 품사 분류 기준에 따른 결과물인가?

나. 기존 연구에서 관형사의 품사 유형 도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들은 범언어적 연구(적어도 본고에서 다루게 되는 한·중·일 세 언어)에서도 유용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2가)에 대해서 학교문법의 품사 분류 기준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교문법에서 품사 체계를 설립하는 데에 ‘형식’(form), ‘기능’(function), ‘의미’(meaning)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순서는 학자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학교문법에서는 대체로 ‘형식⇒기능⇒의미’의 순서로 분류를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상의 선후 순서를 통해 관형사의 도출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

우선, 학교문법에서 형식에 따라 단어는 가변어와 불변어로 양분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단어류는 어미의 변화가 있는 ‘동사·형용사(서술격조사)류’, 그리고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 나머지 단어들이다. 관형사는 형식상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 이유로 불변어에 속하게 된다. 가령 ‘새’는 형용사 ‘새롭다’와 같은 新(new)의 의미를 공유하면서도 형용사에서 제외시키는 이유가 바로 품사 분류하는 데에 형식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기능에 따라 세분화의 과정을 한층 더 거친 것은 주로 불변어이다. 불변어는 기능에 따라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의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관형사는 수식의 기능만 가지기 때문에 수식언이 된다. 가령, ‘하나’와 ‘한’이 같은 의미인 一(one)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수사로, 다른 한쪽은 (수)관형사로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들 간의 기능적인 차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미를 통해 품사 분류를 진행하는데 학교문법에서 의미는

관형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기준처럼 보이지만 고영근·구본관(2008:46)에서 이미 제시했듯이 수식언을 관형사와 부사로 분류한 것은 의미의 기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능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관형사가 부사와 구별되는 이유는 관형사는 체언(주로 명사)을 수식하는 반면,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부사를 수식하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기능이라고 함은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문법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개념이다. 관형사든 부사든 문법적 관계를 맺게 되는 다른 단어와는 모두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를 가지는 데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관형사와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지 용언을 수식하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은 크게 말하면 기능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분포’(distribution)의 특징이 같이 고려된 결과이다. 분포란 단어의 문장에서의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단어와 단어의 결합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sup>4)</sup>

그렇다면 의미는 관형사의 품사 설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관형사를 대개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로 세분화하는데 이러한 유형은 바로 의미에 따른 분류 결과이다. 성상관형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제한해 주는 의미적 특징을 가지고, 지시관형사는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며 수관형사는 사물의 수량을 표시하는 의미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 특징들을 통해 형용사, 대명사, 수사를 쉽게 연상할 수 있다. 관형사의 품사 설정에 대한 논쟁을 흔히 형용사, 대명사, 수사와 연관시키는 것도 관형사는 본질적으로 ‘형식⇒기능’의 순서로 도출되고, 또 실제로 의미를 품사 분류 기준으로 삼지 않

4)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이, 부사도 체언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사들은 체언을 수식함에도 불구하고 부사로 간주하여 흔히 ‘체언 수식 부사’라고 부른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분포’를 통해서 대부분의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관형사와 부사를 완벽하게 분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는 대신 관형사의 하위부류를 설정하는 데에 적용되기 때문이라 본다.<sup>5)</sup> 관형사의 형식, 기능, 분포 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3) 형식적 특징: 어미에 의한 어형 변화가 없다.
- 기능적 특징: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 분포적 특징: 체언(주로 명사) 앞에 온다.

한편, 범언어적 입장에서 형식, 기능, 분포는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최형용(2013)에서 한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해 유형론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4) 그 동안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온 것은 ‘의미(meaning)’, ‘기능(function)’, ‘형식(form)’이다. 그러나 이들 각각에 대해 부여해 왔던 가중치는 상이하다. 적어도 국내의 논의에서 ‘의미’는 대체로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나 오히려 유형론적 보편성을 위한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능’은 품사 분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유형론적 측면에서 여기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었던 ‘분포’를 독자적인 것으로 분리해 내어야 한다. 흔히 ‘굴절성(inflectedness)’을 반영하는 품사 분류 기준으로 간주되어 왔던 ‘형식’은 유형론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최형용, 2013:146-1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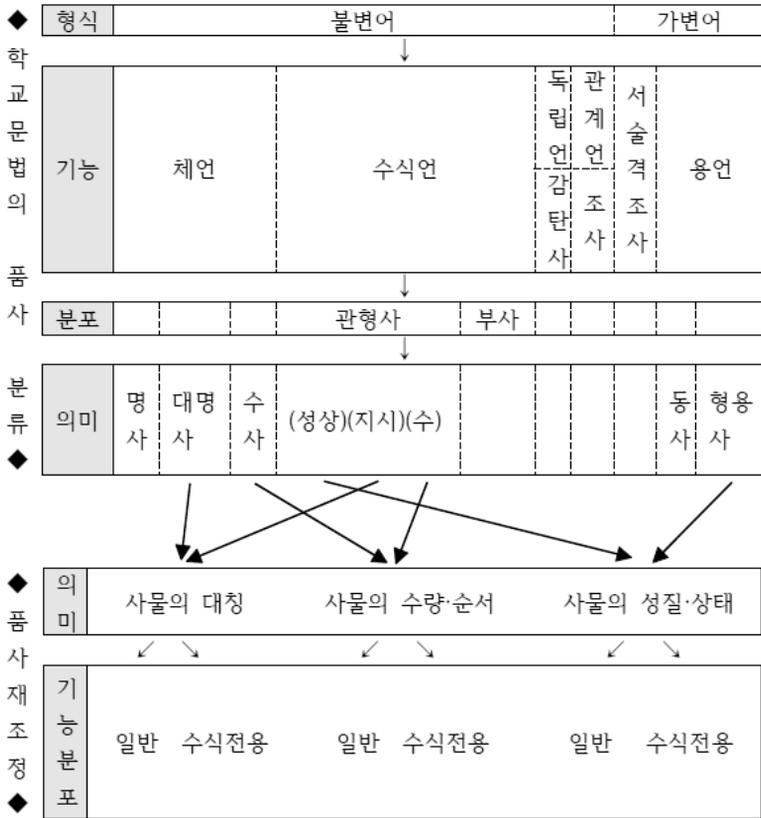
5) 또한, 관형사의 품사 설정과 관련해서 명사를 언급한 경우도 많다. 한국어에서 명사는 다른 명사 앞에 오고 그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존재한다.(예: 학생 시절) 명사를 관형사의 품사 문제와 연관시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형식, 기능, 분포의 특징만 고려하고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 본다.

한편, 崔炯龍·劉婉瑩(2015)는 한·중·일 세 언어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동일한 체계적 상관성에 따른 품사 대조를 위해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분류 기준을 모색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는데 결국 최형용(2013)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즉, 한·중·일 세 언어의 대조를 위해 우선 형식은 교착어인 한·일 양 언어와 고립어인 중국어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류 기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기능<sup>6)</sup>은 세 언어의 문법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도 유용하나 이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반면 원래 세 언어 내부에서 모두 중요시하지 않았던 의미는 세 언어의 보편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일차적인 분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학교문법의 품사 분류 양상을 기반으로 崔炯龍·劉婉瑩(2015)에서 제시된 품사 분류 기준 상의 조정에 따라 기존의 관형사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재귀속시킬 수 있다.

---

6) 崔炯龍·劉婉瑩(2015)에서는 주로 한·중·일 세 언어의 학교문법을 통해 품사 분류 기준을 재설정하기 때문에 ‘분포’를 따로 논의하지 않고 ‘기능’에 포함시켜 다룬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란 본고에서 말하는 기능과 분포를 포괄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 2> 품사 기준에 따른 품사 분류 양상

<그림 2>에서 보여 주듯이, 유형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 기능, 분포를 품사 분류 기준으로 삼되, 의미는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형사의 품사 설정이 불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일차적’이라는 것은 절차상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에 따라 언어 간의 보편성만 보장하게 되면 각 언어의 문법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문법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기능과 분포의 특징을 통해서 한국어의 특수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품사 재조정 과정을 통해, 기존의 관형사는 우선 의미 특징에 따라 기존의 형용사, 대명사, 수사로 귀납하게 되는데 형용사, 대명사, 수사와의 기능 및 분포 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를 각각 수식전용 형용사, 수식전용 대명사, 수식전용 수사라고 따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형용사, 대명사, 수사는 일반적인 형용사, 대명사, 수사라고 볼 수 있다.<sup>7)</sup> 다만 이 장에서는 주로 이론적으로만 검토하기 때문에 <그림 2>는 일종의 예상안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본 장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활용성에 입각하게 되면 더 구체적인 품사 목록이 도출되어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품사의 재설정을 통해서 역으로 이론적 예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3장에서는 기존의 관형사를 대상으로 이의 품사 재설정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3. 기존 관형사의 품사 재설정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관형사는 하나의 품사 유형을 가지는 단어로 등재된 것도 있으며 관형사·명사, 관형사·수사, 관형사·명사·수사, 관형사·대명사, 관형사·감탄사와 같이, 하나의 단어형이 2개에서 3개의 품사 유형을 공유하는 품사 통용어로 등재된 것도 많다.<sup>8)</sup> 지면상의 제약 때문에 여기서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관형사(옛말, 방언, 북한어를 제외함) 가운데 고유어 관형사를 한정해 구체적인 품사 재설정 방

7) 그러나 ‘수식전용’이라고 할 때의 ‘수식’은 형용사에서든, 대명사에서든, 수사에서든 모두 동일한 기능을 지시하는 반면, 대명사 및 수사에서 말하는 ‘일반’은 형용사에서 설정된 ‘일반’과 기능상 완전히 일치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8) 관형사와 관련된 품사 통용어 가운데 관형사·명사 통용어에는 한자어만 속하며 나머지 유형의 통용어에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모두 존재한다.

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고유어 관형사 및 이와 관련된 품사 통용어의 목록은 각각 <표 1>과 <표 2>로 정리된다.

<표 1> 고유어 관형사 목록

품사	단어 목록
관형사	갓은, 고, 고까짓, 고갓, 고린 <sub>01</sub> , 고린조린, 고만 <sub>01</sub> , 고얀, 그까짓, 그갓, 그만, 그린 <sub>01</sub> , 그러저린, 그만 <sub>01</sub> , 긴긴, 너 <sub>02</sub> , 녀 <sub>01</sub> , 네 <sub>02</sub> , 네까짓, 네간, 네갓, 다다음, 다른, 닷 <sub>01</sub> , 대 <sub>03</sub> , 대모한, 두 <sub>01</sub> , 두서너, 두석 <sub>01</sub> , 두세, 두어, 뒤, 땀 <sub>03</sub> , 맨 <sub>01</sub> , 맨탕, 먼먼, 모든, 몹쓸, 무슨, 뭇 <sub>03</sub> , 뭇, 바른, 새 <sub>06</sub> , 서 <sub>03</sub> , 서너, 석 <sub>01</sub> , 세 <sub>01</sub> , 스무, 아무런, 애먼, 어나, 어느 <sub>01</sub> , 어떤, 여인 <sub>02</sub> , 예문, 여느, 여너, 여러, 옛 <sub>02</sub> , 예 <sub>04</sub> , 옛 <sub>01</sub> , 오랜, 오른, 온 <sub>01</sub> , 온가지, 온갓, 올흔, 외딴 <sub>02</sub> , 윈 <sub>01</sub> , 윈 <sub>03</sub> , 요 <sub>03</sub> , 요까짓, 요갓, 요런 <sub>01</sub> , 요런조린, 요만 <sub>01</sub> , 웰 <sub>01</sub> , 이까짓, 이갓, 이내 <sub>02</sub> , 이딴, 이런 <sub>01</sub> , 이런저런, 이만 <sub>01</sub> , 저까짓, 저갓, 저딴, 저런 <sub>01</sub> , 저만 <sub>01</sub> , 저지난, 제까짓, 제갓, 조 <sub>02</sub> , 조까짓, 조갓, 조런 <sub>01</sub> , 조만 <sub>01</sub> , 지지난, 첫, 한 <sub>01</sub> , 한다는, 한다하는, 한두, 허튼, 현

<표 2> 고유어 관형사 관련 통용어 목록

품사	단어 목록
관형사 대명사	고따위, 그, 그따위, 아무, 아무아무, 요따위, 이, 이따위, 저, 저따위, 조따위
관형사 수사	너댓, 너더댓, 너더댓째, 너덧, 너덧째, 네다섯, 네다섯째, 네댓, 네댓째, 다섯, 대여섯, 대여섯째, 대엿, 댓, 댓째, 두서너째, 두세째, 두어째, 마흔, 몇, 몇몇, 서너째, 서른, 스, 스무남은, 아홉, 아흔, 아뜨, 여남, 여남은, 여남은째, 여남째, 여덟, 여덟아홉, 여든, 여라문, 여섯, 열아홉, 열아홉째, 열, 열아문, 열한째, 예닐곱, 예닐곱째, 예수남은, 예순, 일고여덟, 일고여덟째, 일곱, 일여덟, 일여덟째, 일흔, 한두째
관형사 수사 명사	네째, 넷째, 다섯째, 두째, 둘째, 둘찌, 셋째, 스무째, 스물둘째, 스물째, 아홉째, 여덟째, 여섯째, 열두째, 열둘째, 열째, 일곱째, 첫째
관형사 감탄사	까짓, 넌장맛을, 넌장칠, 떡을할, 빌어먹을, 재미붙을, 재미할, 젠장맛을, 젠장칠

<표 1>에서 제시된 관형사들은 우선 의미 특징에 따라 다음 (5)와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sup>9)</sup>

(5) 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갖은, 고얀, 긴긴, 대모한, 먼먼, 오랜, 외딴, 한다하는(한다는),  
허튼, 현, 몹쓸, 애먼, 새; 모든, 못, 온갖, 온; 다른, 판, 여느

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한, 두, 서/석/세, 너/넉/네, 닷/대, 엇/예, 스무; 한두, 두석, 두  
세, 두서너, 서너, 두어(뒤); 여러

다. 대상을 가리키는 말:

이까짓(이깻), 이딴, 이런, 이런저런, 이만; 요, 요까짓(요깻), 요  
런, 요런조런, 요만; 그까짓(그깻), 그딴, 그런, 그런저런, 그만;  
고, 고까짓(고깻), 고런, 고런조런, 고만; 저까짓, 저깻, 저딴, 저  
런, 저만; 조, 조까짓, 조깻, 조런, 조만; 네까짓(네깻, 네깻), 제  
까짓(제깻); 아무런, 이내

라. 의문이나 부정(不定)을 나타내는 말:

무슨(똥), 어느, 어떤, 어인, 웬

마. 정도를 나타내는 말:

맨

바. 시간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말:

다다음, 지지난, 옛, 첫

사. 방향을 나타내는 말:

오른(바른), 왼<sub>01</sub>

(5가)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존연구에서 말하는 성상

---

9) 사전에는 따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준말 등은 괄호를 사용하여 하나로 묶은 뒤 표시하기로 한다. 또한, ‘에문’, ‘온가지’ 등과 같이, 사전에서 ‘→애먼’, ‘→온갓’으로 해석되는 단어들은 ‘애먼’, ‘온갓’ 등의 잘못된 형태이므로 (5)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관형사에 해당한다. 한국어에만 초점을 두었을 때 이러한 단어들은 의미적으로 기존의 형용사와 같은 특징을 가지나 기능 및 분포 상, 형용사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 (6) 가. 새 옷을 입다.  
 나. \*이 옷이 새/새다.  
 다. 날씨가 좋은 날이다.  
 라. 날씨가 너무 좋다.

(6)에서 보듯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 ‘새’는 체언 수식 기능만 가지는 반면, ‘좋다’는 수식 기능과 서술 기능을 모두 지닌다. 또한, (6가)와 (6다)에서 보듯이, 같은 수식 기능을 지니는 경우, ‘새’는 분포 상 체언과 바로 인접하는 반면, ‘좋다’는 체언과 결합 시, 관형사형 어미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중·일 양 언어와 연관시켜 봤을 때 예컨대 ‘새’는 의미적으로 각각 중·일 양 언어의 ‘新’(xīn)과 ‘新しい’(atarashī)에 해당되나 ‘新’(xīn)과 ‘新しい’(atarashī)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기능상 자연스럽게 체언 수식 기능과 서술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된다. 그러나 분포적으로 봤을 때 ‘新’(xīn)과 ‘新しい’(atarashī)는 다음 (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형용사와도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7) 가. 穿新衣服。  
*chuān xīn yīfu*  
 wear new clothes  
 나. 新しい服を着る。  
*atarashī huku-o kiru*  
 new clothes-Acc wear (Acc: Accusative)

(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일 양 언어의 형용사는 체언을 수식할 때 분포 상 어미 등의 도움이 없어도 명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5가)에서 제시된 ‘모든, 몇, 온갖, 온’, 그리고 ‘다른, 딴, 여느’와 같은 단어들이다. ‘모든, 몇’ 등은 수량과 의미적인 관련성이 있어 보여 기존연구에서 이들을 부정수(不定數) 표현으로 보고 수관형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딴, 여느’는 ‘그 밖의’와 같은 지시의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연구에서는 이들을 지시관형사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고는 이와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다. 우선 ‘모든, 몇’ 등은 수량을 제시하기 위한 단어라기보다는 수식을 받은 명사의 양적인 많음이거나 적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몇’ 등은 실제적으로 수량을 한정해 주는 수사나 수관형사의 의미적인 특징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다른 수관형사와 달리, 수 분류사<sup>10)</sup>와 결합이 불가능하며 오직 명사와만 결합이 되는 분포상의 특징에 있어서도 형용사에 더 가깝다. 한편, ‘다른, 딴, 여느’도 같은 맥락으로 특별한 대상을 지시하기 위한 단어라기보다는 특별히 지시된 대상과 상반되는 속성을 띠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단어들에 대응된 중·일 양 언어도 수량이나 지시를 나타내는 말로 보기가 어려우며 형태 상 일반적으로 명사나 형용사 뒤에 각각 ‘的’(de)와 ‘の’(no)가 결합해서 형성된 것이다.<sup>11)</sup> 따라서 한·중·일 세 언어를 대조하는 경우, 이와 같은 단어들까지 형용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10) 수 분류사(numeral classifier)는 한국 학교문법에서 ‘단위성 의존명사’라 명명하여 명사의 일종으로 간주되나 중국 학교문법에서 이는 독립된 품사 유형으로 간주되고 흔히 ‘양사’[量詞]라고 한다. 한편, 일본어에서는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문법에서 이들을 수사에 붙는 접미사로 보고 ‘조수사’[助數詞]라 부른다. 본고는 세 언어에서의 이러한 품사 설정과 명명 방식의 불일치 문제를 고려하여 이들을 ‘수 분류사’로 통일시키기로 한다.

11) 예컨대, 한국어의 ‘모든, 몇, 다른, 여느’는 각각 일본어의 ‘全ての, 多くの, 他の, 普通の’, 중국어의 ‘所有的, 一群的, 別的, 普通的’를 통해 설명한다.

것을 제안할 수 있다.<sup>12)</sup>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5가)의 단어들을 형용사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이들을 망라하는 새로운 ‘형용사’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sup>13)</sup> 다만, 이러한 단어들과 기존의 형용사와의 문법적인 차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가)의 단어들을 형용사에 포함시키되 ‘수식전용 형용사’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sup>14)</sup>

(5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인데 이는 기존연구에서 말하는 수관형사에 해당된다. 수관형사의 단어 수가 매우 적은 이유는 <표 2>를 통해

- 12) 이와 관련해서 중국어와 일본어의 ‘형용사’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학교 문법에서는 ‘형용사’와 유사한 유형으로서 ‘형용동사[形容動詞]’를 따로 설정하고 있다. 형용동사는 의미적으로 형용사와 유사하나 분포 상 한국어의 ‘이다’와 같은 문법적 기능을 하는 ‘だ(da) です(desu)’와 결합하기 때문에 ‘명사적 형용사(nominal adjective)’나 ‘명사성 형용사(nouny adjective)’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이에 비해, 일본어의 소위 형용사는 ‘동사성 형용사(verbly adjective)’이다. 또한, 중국어의 경우, 형용사와 구별하여 명사 수식 기능만 가진 단어로서 ‘구별사[區別詞]’를 따로 설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으나 이들을 형용사의 하위부류로 다루고 ‘非謂形容詞(비서술형용사)’로 보는 견해도 흔히 볼 수 있다. 유형론적으로 말하는 ‘형용사’란 단어의 ‘의미’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형용사’는 일본어의 형용동사, 중국어의 구별사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이다. 다만, 본고는 한국어의 관형사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중일 양 언어의 이러한 품사 유형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생략하기로 한다.
- 13) 사실상, 통시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의 성상관형사 가운데 용언의 관형사형이 굳어진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5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갓은, 고안, 긴긴’ 등처럼 ‘-(으)ㄴ’으로 끝나거나 ‘뭉쓸’처럼 ‘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통해서도 관형사와 형용사의 관련성을 관찰할 수 있다.
- 14) 사실상 기존 연구 가운데 본고에서 제안된 ‘수식전용 형용사’와 일맥상통한 개념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었다. 목정수(2011)에서 이들을 ‘수식 용법만의 형용사(attributive-only adjectives)’로 설정하였고 ‘명사성 형용사(nouny adjectives)’의 한 하위부류로 보는 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용사는 ‘동사성 형용사(verbly adjectives)’라 하였다. 본고에서는 한중일 세 언어를 대상으로 품사 분류 기준에 입각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품사 설정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수식전용 형용사’에 대응하여, 나머지 형용사는 ‘수식’ 뿐만 아니라 ‘서술’ 기능도 하기 때문에 ‘비수식전용 형용사’라 할 수 있기도 하다.

관찰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수관형사는 수사·관형사, 수사·관형사 명사의 품사 통용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사 통용어는 소수 집합이어야 효율적이다. 朱德熙(1984:48)에 따르면 우리가 단어를 A와 B로 구별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때 A에 속하는 대부분의 단어가 B에도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대부분의 단어가 A에도 속한다면 A와 B라는 분류 자체가 의미 없는 분류가 될 것이다.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분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기능 및 분포 상의 차이 때문에 수사와 수관형사를 따로 설정하는 것인데 한국어에서 ‘다섯’부터는 수사와 수관형사 간의 형태적 차이가 없어지므로 수관형사가 설정된다면 ‘다섯’부터의 수 표현은 모두 수관형사이자 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일 양 언어에서는 ‘한, 하나’, ‘두, 둘’처럼 같은 수량 개념을 나타내면서도 형태상의 차이를 보여 주는 현상이 없다. ‘한’과 ‘하나’, ‘두’와 ‘둘’ 등간에 일정한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 두’ 등을 ‘하나, 둘’ 등이 체언 수식할 때의 변이형으로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5나)를 비롯해 수관류 통용어까지 모두 수사에 귀속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현경(2008:6)에서 이미 제시했듯이 ‘한’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두, 세, 네, 다섯...’ 등의 다른 수관형사들에 비하여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관형사로서의 ‘한’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8) 한 「관형사」

「1」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 그는 한 달 월급을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2」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옛날 강원도의 한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다.

「3」 ‘같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전교생이 한 교실에 모여 특강을 들었다.

「4」(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대략’의 뜻을 나타내는 말.

¶ 한 20분쯤 걸었다.

(8)에서 보듯이, ‘한’은 수량 하나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어떤’, ‘같은’, ‘대략’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어떤’이나 ‘같은’의 의미를 가지는 ‘한’은 수량 一(one)의 의미를 어느 정도 포함하며 ‘하나’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중·일 양 언어와 일맥상통하다. 반면, ‘대략’을 뜻하는 경우, 수량 一(one)을 나타내는 말과의 관련성이 매우 희미해 보인다. ‘한’이 ‘대략’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응된 중·일 양 언어는 모두 다른 부사적 표현을 통해 나타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어도 ‘대략’의 의미를 가지는 ‘한’은 별도로 취급하여 부사 ‘한’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 외에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품사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와 달리,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모두 수관류나 수관명류 통용어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표현의 체계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단어들도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수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본다.

(5다)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존연구에서 말하는 지시관형사에 해당된다. 이러한 단어들 가운데 ‘이, 그, 저’(또는 ‘요, 고, 조’)의 계열관계를 지닌 것이 대부분이다. 비록 그 중에 ‘X까짓’과 같이 ‘정도’의 의미를 포함하고 ‘X런’과 같이 성질이나 상태의 의미를 어느 정도 포함하는 것도 있으나 이들이 ‘이, 그, 저’와 결합된 이상, 지시의 의미를 전제로 한다. 중국어에서는 지시를 나타내는 데에 ‘这’(zhè)와 ‘那’(nà)의 이분 체계를 취하며 ‘这’(zhè), ‘那’(nà)의 계열관계를 가진 단어들은 모두 ‘대사’[代詞]라는 품사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어에서는 ‘こ(ko), そ(so), あ(a)’ 계열관계를 지닌 ‘この’(kono), ‘その’(sono), ‘あの’(ano)를 ‘연체사’

[連體詞]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볼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분류 방식을 반대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유형론적으로는 ‘이, 그, 저’ 계열관계를 가진 단어들은 모두 지시사로 보되 일반 지시사와 기능 및 분포 상의 차이를 명시하기 위해 (5다)에 속하는 단어들을 ‘수식전용 지시사’로 지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sup>15)</sup>

다음으로 (5라)의 의문이나 부정(不定)을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품사 설정에 있어 의문이나 부정의 의미는 크게 봤을 때 지시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설정 방식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크게 보면 (5라)도 (5다)와 같은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무엇, 어디’ 등과 달리, (5라)의 ‘무슨’, ‘어느’ 등은 체언 수식기능만 가지기 때문에 ‘수식전용 지시사’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5마)인데 이에 속하는 단어가 ‘맨’ 뿐이다. ‘맨’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 있다.

(9) 맨 「관형사」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

¶ 맨 처음/산의 맨 꼭대기/맨 먼저/그녀는 맨 구석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중세는 맨 가장자리에 있는 카빈총을 집어 들었다.

‘맨’을 관형사로 취급하는 것은 (9)에서 보여 주듯이, 이는 ‘처음’, ‘꼭대기’ 등 체언 앞에 오고 이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맨’은 ‘먼저’와 같은 부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우리가 ‘부사를 수식하는 단어’에서 기존의 많은 부사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 사실상 기존연구에서 관형사를 설정함에 있어 부사와의 경계 설정

15) 여기서 ‘대명사’ 대신 ‘지시사’의 지칭을 사용하는 것은 ‘대명사’라는 명명 방식은 ‘명사를 대신 하는 말’의 제한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대명사’의 ‘名’자를 삭제하여 중국어에서처럼 ‘代詞’로 지칭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주로 수식언을 피수식어의 문법범주에 따라 구분하는 기존의 분류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16)</sup> 의미적으로 봤을 때 ‘맨’은 기존연구에서 ‘성상관형사’로 취급하나 이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最’와 같은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중일 양 언어에서도 ‘最’(zui)나 ‘最も’(mottomo)와 같은 부사를 통해 ‘맨’을 설명하는데 이들은 모두 부사로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맨’을 부사로 귀속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5바)의 시간 관련 단어들과 (5사)의 방향 관련 단어들이다. 우선, ‘다다음’과 ‘지지난’의 문제이다. 이들은 ‘다음’ 또는 ‘지난’과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뚜렷한 상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다다음’과 ‘지지난’은 모두 관형사로 보는 반면, ‘다음’은 명사로 간주되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고 ‘지난’은 사전에 실리지 않으면서도 ‘지난주’, ‘지난번’ 등과 같이 ‘지난’이 포함된 복합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 <표 3>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표제어의 선정에 있어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16) 황화상(2008:319)에서 이미 제시했듯이, 수식언을 단순히 피수식어의 문법범주에 따라 관형사와 부사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무려, 한낱’ 등과 같이 부사들 가운데 용언을 수식하지 못하고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든 바가 있다.

ㄱ. 1년 새 기름값이 무려 갑절이나 올랐다.

ㄴ. 이 어음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

&lt;표 3&gt; ‘다음’, ‘다다음’, ‘지난’, ‘지지난’과 관련된 표제어의 선정

	다음	다다음	지난	지지난
+봄	다음 봄	다다음 봄	지난봄	지지난 봄
+여름	다음 여름	다다음 여름	지난여름	지지난 여름
+날	다음날	다다음 날	지난날	지지난 날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지난달	지지난달
+해	다음 해	다다음 해	지난해	지지난해
+번	다음번	다다음 번	지난번	지지난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지난주	지지난 주
+주말	다음 주말	다다음 주말	지난 주말	지지난 주말

<표 3>에서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것들이 모두 한 단어로 취급되며 이러한 경우의 ‘다음’, ‘지난’, ‘지지난’은 모두 단어 형성요소로 보고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요구되며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두 단어로 형성된 구(句)로 본다. ‘다음날’, ‘지난날’의 경우, ‘그 날의 바로 전/후의 날’과 같은 의미에서 벗어나 각각 ‘정하여지지 아니한 미래의 어떤 날’, ‘지나온 과거의 날; 역사상의 한 시기’와 같이 의미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의미적 특수화’의 어휘화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지난봄’은 하나의 단어로 보면서 ‘지지난 봄’은 구로 보거나, ‘지난주’는 하나의 단어로 보는 동시에 ‘다음 주’를 구로 보는 것 등 이유 불충분한 구분이 종종 보인다. 또한, ‘지난’은 다른 것과 달리, 사전에서 하나의 단어로 실리지 않으면서 ‘지난 주말’과 같은 표현에서 붙여 쓰지 않은 것도 모순이 되는 사항이다. <표 3>과 같은 구별들이 사실상 한국인에게도 어려운 문제인 듯하다. 후행 명사와의 결합 상의 긴밀도를 고려할 때 ‘다다음’과 ‘지지난’을 비롯해 ‘다음’과 ‘지난’도 같이 단어 형성요소로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띄어쓰기의 규정이 불가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에서 파생된 띄어쓰기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와 달리 ‘다음이다’, ‘다다음에’ 등에서처럼 명사가 아닌 조사와 결합하는 ‘다음’과 ‘다

다음'은 따로 명사로 볼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옛’과 ‘첫’도 마찬가지로 ‘옛글’, ‘첫걸음’과 같이, ‘옛’이나 ‘첫’이 포함된 말은 복합어로 보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반면, ‘옛 추억’, ‘옛 친구’, ‘첫 경험’, ‘첫 사건’ 등은 관형사 ‘옛’이나 ‘첫’이 포함된 구(句)로 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따로 분류해야 하는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모두 단어 형성요소로 통일시킬 것을 제안한다.

(5사)도 (5바)와 일맥상통하다. ‘오른’, ‘왼’은 자립성이 결핍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명사와 결합해야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왼발’, ‘왼손’, ‘오른뺨’, ‘오른팔’에서처럼 신체와 관련된 단어 중 일부와 결합할 때 단어 형성요소로 간주하는 경우가 흔히 보인다.<sup>17)</sup> 중·일 양 언어에서 ‘左’(zuǒ, hidari)와 ‘右’(yòu, migi)를 사용하나 이들은 ‘왼’, ‘오른’과 달리 명사로도 사용된다. 한·중·일 세 언어를 같이 고려했을 때 ‘왼’과 ‘오른’은 단어 형성요소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띄어쓰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관형사와 관련된 <표 3>의 관형사·감탄사의 품사 통용어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관형사와 감탄사의 두 가지 품사 유형을 공유하는 이유는 이들이 체언 수식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이 대부분 관형사형 어미 ‘-(으)르’로 끝나는 것으로서 비속어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sup>18)</sup> 수식 기능을 가지는 경우, 이들을

17) 이러한 현상은 ‘오른 다리, 오른 무릎’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신체어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18) 배진영(2010:181)에서 제시했듯이, 예컨대 ‘넌장맛을, 져장칠, 제미불을’의 경우, 각각 ‘네 난장을 맛다, 제기 난장을 치다, 제 어미와 불다’와 같이 명사(구)와 용언 ‘맛다, 치다, 불다’가 결합한 구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맛다, 치다, 불다’의 관형형들은 ‘-을’이 결합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에 쓰이는 어휘로 굳어져 사용됨으로써 본래 용언들의 나타내는 의미와는 다른 독립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수식전용 형용사로 보고, 감탄의 용법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들을 감탄사로 보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기존 관형사의 품사 설정 문제를 검토하였다. 관형사는 한국 학교문법을 비롯해 하나의 독립된 품사 유형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유형론적 관점에서 이의 품사 설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기존의 한국어 관형사를 중·일 양 언어와 연관시켜 범언어적 측면에서 이의 품사 설정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품사 분류 기준에 착안하여 한·중·일 세 언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한국어의 관형사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 의미적 속성에 따라 형용사, 대명사, 수사에 귀속시킨 다음, 기능 및 분포 상의 특징에 따라 기존의 형용사, 대명사, 수사 개념과 구분하여 수식전용 단어로 각각 하위부류를 설정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검토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적용시키기 위해 기존의 관형사 목록(고유어를 한함)을 추출하여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품사 재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인 품사 재설정에 있어서 앞서 도출된 이론적인 관형사 재설정 제안과 일치하여 대부분의 기존 관형사를 ‘성질이나 상태’, ‘수량’, ‘지시, 의문이나 부정(不定)’의 의미 속성에 따라 각각 수식전용 형용사, 수식전용 수사, 수식전용 지시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품사 설정이란 항상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존의 관형사 목록 가운데 ‘정도’를 나타내는 것도 찾아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부사로 귀속시켰다. 그 외에 ‘시간이나 차례’, ‘방향’ 등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는데 이들을 단어 형성요소로 보고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피어쓰기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본고는 비록 중·일 양 언어와 연관시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한국어 관

형사의 품사 문제를 보다 전면적으로 다루기 위해 추후 중·일 양 언어를 넘어 더 광범위적으로 보다 많은 언어들과 관련시켜 한국어 관형사의 설정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설정 방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본고는 한국어 관형사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중·일 양 언어와 관련시켰을 때 중국어에서 말하는 형용사, 대사, 수사, 그리고 형용사와 관련된 구별사, 일본어의 형용사, 형용동사, 연체사, 그리고 명사의 하위 부류로 간주된 대명사 및 수사 등, 많은 품사 범주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엄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1).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선효(2011). 『한국어 관형어 연구』. 역락.
- 목정수(2002).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체계적 품사론을 위하여-, <언어학> 31, 한국언어학회. 71쪽~99쪽.
- 목정수(2009). 한국어 명사성 형용사의 설정 문제 -유형론적 접근과 국어교육적 활용-,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육학회. 387쪽~418쪽.
- 목정수(2011). 한국어 ‘명사성 형용사’ 단어 부류의 정립: 그 유형론과 부사 파생, <언어학> 61, 한국언어학회. 131쪽~159쪽.
- 배진영(2010). 관형사 범주 설정에 대한 논의 -체언 수식 용언 활용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7, 국어교육학회. 165쪽~188쪽.
- 서정수(1995). 『국어문법』(수정증보판). 한양대학교출판부.
- 유현경(2008). 관형사 ‘한’에 대한 연구, <국어학> 53, 국어학회. 65쪽~86쪽.
- 이건환·송경안(2008). 한국어의 품사, 『언어유형론1』, 월인. 53쪽~65쪽.
- 이정택(2003). 관형사의 품사 설정 문제,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167쪽~187쪽.
- 지경래(1995). 『일본어 문법 개설』. 태학사.
- 최용환(2013). 관형사의 문법적 특징-관형사의 품사설정과 규정, <語文學> 121, 한국어문학회. 107쪽~136쪽.

- 최형용(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하여-분류 기준으로서의 ‘형식’을 중심으로, <형태론> 14-2, 형태론. 233쪽~263쪽.
- 최형용(2013).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박이정.
- 崔炯龍·劉婉瑩(2015). 韓·中·日 品詞 對照를 위한 品詞 分類 基準 設定, <語文研究> 4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7쪽~149쪽.
- 황화상(2008). 관형사와 부사의 품사 설정에 대하여 -이른바 체언 수식 부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2, 한국어학회. 317쪽~344쪽.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北京大學中文系現代漢語教研室(2007). 『現代漢語(重排本)』. 商務印書館.
- 石毓智(2010). 『漢語語法』. 商務印書館.
- 朱德熙(1984).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 金銀珠(2006). 近代文法學における「形容詞」「連體詞」概念の形成について: Adjective から形容詞・連體詞へ, <日本語の研究> 2-2, 日本語学会. 123~137.

리우 완잉(劉婉瑩, Liu Wanying)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번호: 02-3277-2140

전자우편: peavox7@hotmail.com

접수일자: 2017년 1월 30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3월 3일

게재확정: 2017년 3월 17일